광주 명품 '우리밀빵'…매출도 '빵빵'해요

광주여대 우리밀빵명품브랜드화사업단

기술·마케팅·판로 개척·품질 관리 지원

산들베이커리 등 9곳 '입소문' 손님 몰려

지난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씨튼베이커리 2호점에서 사람들이 우리밀빵을 살펴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산들베이커리(사장 김태형)는 지난해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우리밀로 만든 쿠키와 피자를 납품하고 있다. 조만간 미니스톱에도 진출할 예정이어서 올해 예상 목표 매출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직원 10명이 제과공장으로 출발했던 산들베이커리가 불과 1년 만에 이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밀빵명품브랜드화사업단의 도움이 컸다. 김태형 사장은 "우리밀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도움과 마케팅 방법에 대해 많은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여대 우리밀빵명품브랜드화사업단(단장 박병건·이하 사업단)은 '우리밀빵 맥'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이용해 지역 연고 제빵업체와 밀 재배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해 지난 2010년 출발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전국 우리밀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밀 소비가 늘 경우 우리밀 재배농민을 비롯해 이를 이용한 가공제조업체의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업단은 제과 기능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려 지역 내 제빵업체에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밀빵은 기존의 빵과 만드는 방법이 다른데다 고급화를 위한 다양한 가공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마케팅을 비롯해 판로 개척을 돕는 것은 물론 우수 제품 품질인증 등 품질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업단의 이같은 노력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주도하는 제빵시장에서 지역 제빵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현재 사업단의 지원을 받는 업체 산들베이커리를 비롯해 시튼베이커리, 라프레스코, 파고다FS, 농가사랑, 모나티, 우리밀빵 맥, 우리밀 살리기, 우리밀 체험교실 모두 9곳이다.

이들 업체들도 산들베이커리처럼 우리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는 등 각종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씨튼베이커리(대표 최은숙)는 단순히 장애인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벗어나 맛있는 빵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최근에는 금남지하상가에 2호점을 개점하는 등 외형을 확장하고 있다.

라프레스코(대표 이영환)도 천연발효빵을 비롯해 유럽식 전통빵 13종이 사업단의 우리밀빵 제품으로 인정받았으며, 마들렌, 코로와상, 호두파이 등을 고급화해 선보이면서 선물용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업단은 현재 홍화씨 쿠키, 천연초 머핀, 우리밀 마늘빵 바게트 등 다이어트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우리밀빵과 천연 효소, 유산균 개발에 적극투자를 하고 있다.

박병건 우리밀빵명품브랜드화사업단장은 "우리밀빵을 천안의 호두과자, 경주의 황남빵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명품빵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서민경제 '油彈'

알뜰 주유소 늘리고 공공유류 공동구매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고자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추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주유소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한다.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유류를 경쟁입찰로 최저가 구매하고 계약 정보를 공개한다.

국제 원당가격 하락에도 요지부동인 국내 설탕값 인하를 위해 제당업계가 가격을 내릴 때까지 정부가 설탕을 직수입해 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다양한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 물가와 서민생활에 주름이 생기고 있다"며 "일본은 유가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는데 이는 진입규제 완화, 경쟁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생산·유통의 구조개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 개설, 수입 활성화, 알뜰 주유소 설치 등의 대책을 서둘러 추진키로 했다.

알뜰주유소를 통해 휘발유 가격을 내리고자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품질검사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키로 했다.

현재 369개인 알뜰 주유소도 3월까지 430개로 늘린다. 농협폴과 도로공사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공공부문은 유류를 공동구매한다. 국내 석유시장이 과점 공급체제여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량을 취합해 최저가 경쟁입찰로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하기로 했다. 낙찰정보는 오피넷 등에 공개해 일반소비자 가격 인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중앙부처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도 유도한다. 2010년 기준 공공 부문의 유류 구매량은 내수의 13.5% 정도지만 지방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면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정부가 수입하는 설탕도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고 오는 6월에 만료되는 설탕 할당관세율(0%)의 연장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광주 산학연 기술포럼 창립

광주테크노파크

지역 우수 신기술이 지역 중소기업에 이전·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을 공유하는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새롭게 출범했다.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지난 29일 광주 첨단산단 내 가전로봇센터 대강당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한 산업별 산학연협의회,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산학연 기술포럼 창립 및 제1차 정기포럼'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광주 산학연 기술포럼'은 지역 내 우수기술 공유와 확산에 초점을 맞춰 지역에서 개발된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지역 기업들이 실용화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협력체다.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포럼은 지역 기업인과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된다. 연 4회 포럼을 열고, 정기포럼 때는 중앙정부의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지역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을 듣는다. 또 대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와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빙해 기업의 기술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도 마련한다.

특히 산업별 산학연협의회와 기술이전협의회를 활용해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풀(POOL)을 상시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내 주요 유망기술 현황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기술거래 엑스포'도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 산학연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광주지역에서 개발·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이 홍보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역 기업에 이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우수기술 공유화 확산과 지역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새얼굴

"서남권 발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

정남석 한은 목포본부장

"중소 조선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28일 부임한 정남석(55) 한국은행 목포본부장은 "가계와 기업의 자금사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F1코리아 그랑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한 전남 서남권 발전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목포 출신인 정 신임 본부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파리8대학 경제학 석사과정을 나왔다. 1982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발권기획팀장·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실장 등을 지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까지

국세청,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확대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하는 빈곤층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이 최대 200만원으로 늘어나고 수혜 대상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까지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기준으로 지급액이 차등화된다. 종전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12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총소득 기준금액은 자녀수에 따라 1300만~25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자녀 나이가 18세를 넘는 50대 이상 저소득 부부가 대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종전 5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적용대상에는 보험가입자 모집 또는 방문판매를 통해 모집(판매)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4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을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은 5월에 한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근로장려금을 9월 말 전에 지급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30.25 (+26.56)
▲ 코스닥지수	542.30 (+1.95)
▲ 금리 (국고채 3년)	3.45% (+0.03)
▼ 원·달러 환율	1118.70원 (-5.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평내호평역앞):070)8829-9903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